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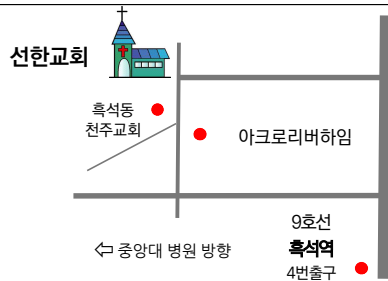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교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양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4:3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2장 (통일찬송가 48장)
교	독 문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찬	양 과 경 배	270장 (통일찬송가 214장)
말	씀 봉 독	요한계시록 3장 7 ~ 13절
설	교	빌라델비아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롬11:1-10)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	이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며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행할 성찬식용 떡(빵)과 포도 주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배 안내	1. 기간: 4월1(수)~4월12일(주일) 2.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3.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드림 (가정 영상예배)	
3.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부서별, 셀별 기도 제목을 담임목사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로마서~히브리서]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5.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화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이해할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붙들기를 이 모든 상황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	--

가정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찬송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통 456)	
본문 : 사무엘상 3장 19~20절	
말씀 : 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무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아이가 없었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입니다. 부모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녀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무엘 삶의 큰 특징은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삼상 2:18)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삼상 2:21)	
아이 사무엘은 부모님과 떨어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무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만 존중한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제사장 엘리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를 찾아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그 것을 가지고 엘리에게 먼저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 쪽에서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직장 등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로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에 사무엘의 모습은 귀한 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한 사무엘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삼상 2:26)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시고 그의 말을 권위 있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존중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부모 선생 교회직분자 국가지도자)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존중합니까.	

은혜의 말씀	
제목	빌라델비아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3:7-13)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 빌라델비아교회의 상태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7절) (2) 주님의 칭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8절) (3) 주님의 권면: ①‘자칭 유대인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네 발앞에 절하게 하고...’(9절) ②‘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10절) ③‘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11절) (4) 주님의 약속: ①‘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선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②‘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12절) 2. 교훈 (1)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2) 나는 작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가? (3) 나는 환난중에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주실 것을 믿는가?
결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날짜 : 4월 6일
찬양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본문	마가복음 11:15-25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 본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던 마당에서 성전 제사를 위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에 쓸 짐승을 엄격하게 검사했는데, 그 검사에 통과하려면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사는 것이 더 편리했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아무 문제 없이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에는 로마 황제나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에 성전에 헌금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동전을 교환해 주는 환전상들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작심한 듯 상을 뒤엎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16절) 물건을 나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 잠시 동안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인들과 제사장들의 부정한 결탁을 공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전 제사 자체를 중단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은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가는 길에 어제 예수님께 저주 받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20절) 베드로가 신기해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믿어라”(22절)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분에게 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기도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어”(24절)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도나 응답 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기쁨을 경험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찬양과 기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새 151/통 138)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중국 단둥에서 단둥병원을 운영하던 박세록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장로님은 단둥 병원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무료 병원이라는 소문이 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국 공안(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시간 박 장로님은 샌디 에고감리교회에 부흥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부흥회 첫날 저녁 식사 후 중국에서 전화가 걸려 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안이 여러 사람을 불러 “결국 전도하려 온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며 전도 대상들을 자세히 적으라고 압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병원 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박 장로님은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았으면 되었지, 이제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우냐?” 기도 후에 전화하니 신기하게도 으름장을 놓던 중국 공안이 수그러져 있었고, 그가 생각한 무시무시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안은 무료 봉사를 계속하는 한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으니 유료 병원으로 바꾸라 했고, 그 말에 승복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을 의지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앞장섰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15:1~15	
묵상포인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무리의 영적 무지, 빌라도의 무책임한 판결 등에 의해 결국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왕인 자신의 정체성만 밝히실 뿐 수많은 고발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재판의 주도권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말이 아닌 행함과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만이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성취하게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빌라도의 불법 재판과 대제사장들의 수많은 고발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3~5절)	
적용하기	불법과 소요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 뜻을 좇아 순종하시는 예수님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길은 말이 아닌 행함과 순종으로 걷는 길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사람들의 비방이나 모함예 휘둘리지 않고 어떤 사명이든 예수님처럼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십자가의 사랑	날짜 : 4월 10일
찬양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본문	마태복음 27:45-56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득이 되는 길만을 따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롱받은 자입니다. 구경꾼들은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원하는 광경이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했습니다. 호기심인데 이 호기심은 사실 놀리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롱인 겁니다.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조롱을 보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눅23:39) 능히 주님은 엘리야를 부를 수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조롱 대신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버리는 대신 그 짐을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롱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한번 버림받고 배신당하면 다시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버림받고 조롱받으셨는데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묵상질문	1.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2. 그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포도원의 주인	날짜 : 4월 7일
찬양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본문	마가복음 12:1-12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우리 자녀일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혹은 현재 우리가 삶에서 애를 쓰는 그 무언가 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편하게 보였던 일상도 포도원 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신 포도원을 잘 가꾸고 보살펴서 좋은 소출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농부들처럼 포도원에 집착하는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 농부들처럼 여러 죄들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순간, 성경적인 양육과 교육의 원리는 사라지고, 과거 방영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세상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시작되며, 자녀들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또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농부들처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능욕하는 등 여러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포도원이, 우리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농부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시선이 포도원과 소출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에게 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원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2. 내가 회개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출으심	날짜 : 4월 8일
찬양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본문	마가복음 14:32-42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다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 영상을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 된다 할지라도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삶의 자리에 흠어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치심으로 제자들을 흠으신 이유에 대해 환난 속에서 “여호와와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함께 드리는 현장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흠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흠으신 이유 역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게 위함입니다.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 또는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또는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독대하는 귀한 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흠어져 도망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심을 믿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코로나19 사태를 나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오늘의 기도			

매일 Q.T.		재판받으심	날짜 : 4월 9일
찬양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본문	마가복음 15:1-15		
	새벽, 날이 새자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고 증거합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안나스의 집 :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 데리고 간 곳은 안나스의 집이었었습니다.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심문했지만, 그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요 19:12-24 참조). ②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 가야바와 종교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막 14:53-65). ③빌라도 총독의 법정(1차 심문) :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사형을 선고했음지라도, 당시 식민지의 사법체계에서는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1차 심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마 27:11-14; 눅 23:1-5; 요 18:28-38). ④헤롯 안티파스 :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므로,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안티파스)에게로 보내어 심문을 받게 했습니다(눅 23:6-12). 하지만 헤롯도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⑤빌라도 총독의 법정(2차 심문) : 빌라도는 예수님을 2차 심문했습니다(마 27:16-26; 눅 23:13-25; 요 18:39-19:16).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나스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총독 빌라도의 법정→ 헤롯 안티파스→ 총독 빌라도의 법정 등 5번 심문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재판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간 것과 헤롯(안티파스)의 집으로 간 것은 생략했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2번 간 것도 또렷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입증되는 또렷한 두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의 심문과 총독 빌라도의 최종판결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상질문	1. 빌라도처럼 내 삶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기도			